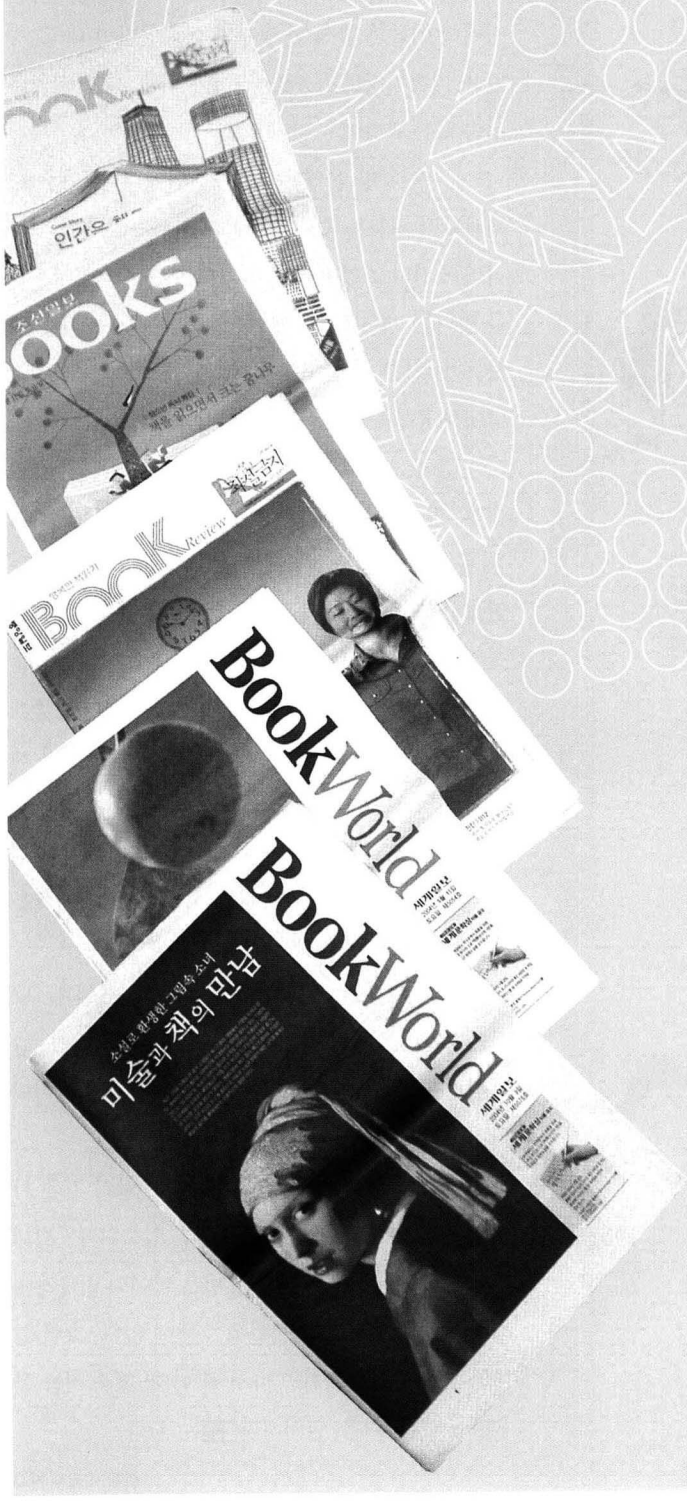
# 언론이 주목한 이달의 책들

## 파우스트·미국사·탐서주의를 꿰며 《벌거벗은 여자》의 인류학적 성찰에 시선




추석 직전 주요 일간지들은 연세대 김수용 교수의 새로운 지적 탐색의 결과물에 정색했다. 《파우스트》를 오늘의 정신으로 재해석한 《괴테 파우스트 휴머니즘》에 대해 9월 10일자 〈동아일보〉는 "《파우스트》야말로 기독교적 중세의 틀을 벗어던지고 인간 중심의 세계를 열어젖힌 작품"이라며 "현대라는 시대의 인본주의적 본성을 파악한 '프로젝트 모던'의 산물이라는 점이 작품 해석의 키워드"라고 지은이의 저술 태도를 평가했다.

신문들은 한결같이 김 교수의 저작을 두고 '고전 증의 고전과 벌인 전면적인 지적 투쟁'이란 투로 후한 점수를 매겼다. 같은 날짜 〈한겨레〉는 "《파우스트》에 관한 단편적인 해석은 적지 않았지만, 작품 전체를 총체적으로 해석하는 연구 결과물은 없었던 국내 독문학계의 그간 사정은 이 저작의 위치를 가늠케 해준다"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 《괴테 파우스트》, '고전과 벌인 지적 투쟁' 평가

동서양의 살아온 방식과 사람들 이야기는 지금에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함의로 다가오기 때문일까. 각 신문이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미국사》, 《후진타오》, 《책의 도시 리옹》을 섭렵한 것도 그래서인 듯하다.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미국사》는 17세기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부터 2001년 9·11사건까지 미국의 역사를 주제에 따라 문답식으로 다룬 책. 10월 6일자 〈서울신문〉은 이를 두고, "미국 역사의 어느 한 단면을 이야기해도 비교적 솔직하고 균형잡힌 시각을 보여줘 거부감을 주지 않는" 저술로 묘사했다. 특히 〈국민일보〉는 '니그로(흑인)에게 배심원 자격이나 선거권을 주는 것도 찬성하지 않으며, 두 인종이 평등하게 사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란 링컨의 술회를 예로 들며, 정녕 우리가 몰랐던 역설과 모순까지 아우르며 미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일러주는 책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중국을 빼곤 이젠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다고 했던가. 그래선지 10월 16일자 〈세계일보〉, 〈서울신문〉, 〈동아일보〉 등 대부분 신문들은 일제히 책 《후진타오》를 조명했다. 이는 2명의 중국언론인이 발로 뛰면서 쓴 전기다. 〈동아일보〉는 "중국 언론인의 저서라고 중국 정부의 입김이 반영된 공식전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며 "생생한 현장취재를 바탕으로 후진타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기록이나 기존 언론보도의 진위를 날카롭게 파헤친 책"으로 파악했다. 이 신문은 기존 중국 지도자와 분명히 차별화된 책 속의 인물 후진타오에 주목했다. '소리 없이 조직을 장악하는 모습', '스스로 끊임없이 자

신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덕을 중시해 기능을 기른다(自强不息 厚德載物)' 는 칭화대 교훈과 같은 미덕을 그와 겹치게 함으로써 정치 엘리트의 합목적적인 프로토를 의역해 내고 있다.

**또다른 시공간적 함의···미국사, 후진타오, 그리고 '리옹'**

도쿄대 교수 미야시타 시로의 《책의 도시 리옹》은 한 도시의 흥망성쇠를 통한 인류적 삶의 기복을 유추케 하는 책이다. 9월 17일자 〈문화일보〉와 〈국민일보〉는 매우 소상하게 이 책의 내용과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프랑스 남동부의 작은 도시 리옹이 르네상스 때 자유롭고 화려한 출판문화의 중심지였음을 상기했다. 특히 17세기 성바르톨로뮤 대학살과 페스트로 인해 쇠망하기까지 "당시 문제시되는 책들을 주로 펴내며 자유로운 공기가 숨쉬는 '이단서적의 생산기지였다"고 소개했다. 그럼 왜 화두가 '리옹' 인가. 〈국민일보〉는 "소란한 상인들의 도시에서 어떻게 출판이라는 지식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독특한 출판 자유와 세속의 정신은 무엇이었는지를 추적한 책"이란 말로 그 답을 대신했다.

"태어나 지금까지 두 번, 책을 훔친 적이 있다고 털어놓는 책에 대한 욕망"-. 그 '욕망' 의 주인공은 최근 《탐서주의자의 책》으로 지면에 부지런히 오르내리는 출판평론가 표정훈씨다. 표정훈을 필두로 '깐수' 정수일, 재일교포 학자 서경식, 그리고 소설가 이청준 등은 이달 들어 주요 신문들이 모두 만나보고 싶어 한 인물들이다. 각기 비슷한 수위의 사유와 성찰, 고집스런 문화적 탐닉이 그들의 공통된 모습이라설까.

〈국민일보〉는 10월 14일자 지면에서 표정훈을 만났다. 대학 시절 못말리는 서적광, 복사의 달인, 그리고 나선 탐서주의 이데올로그가 된 그의 변은 의외로 명쾌하다. 〈국민일보〉의 묻는 말에 "남들보다 전문적으로 책을 읽는다고 해서 유식한 척, 글을 쓰고 싶지 않았다"며 "보통 독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책을 읽으며 느낀 감상들을 다분히 사적 분위기에 담아냈다"고 털어놨다.

'깐수' 정수일의 프로필을 10월 2일자 〈한겨레〉는 '파란만장' 이란 말로 압축했다. 외교관, 대학교수, 아랍계 외국인, 그리고 1996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간 옥살이한 '간첩' ···. 그런 굴곡과 파란에도 꺾이지 않는 그의 지적 열정이 90통의 편지를 통해 번뜩이는 책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다》의 갈피를 〈한겨레〉는 자못 숙연한 태도로 정독하는 모습이다.

**언론, 표정훈·정수일·서경식·이청준을 만나다**

그 못지않은 한 인간의 처절한 감회가 활자화된 책 《소년의 눈물》 역시 일간지 서평자들을 두루 감동시킨 듯하다. 〈세계일보〉는 9월 18일 38면에서 지은이 서경식 교수의 다양한 독서편력을 담은 이 책에 대해 "각기 언급된 작품에 대한 이야기보다 소년 시절에 대한 농도 깊은 애정을 담고 있다"고 평했다. 〈국민일보〉는 "저자 스스로 모국어로부터도 버림받은 디아스포라"로 묘사하며, 한층 애잔한 눈길을 책과 지은이에게 보내고 있다. 나아가 "어린 시절 독서 체험을 담은 이 에세이집은 일본어를 거치지 않으면 사고나 표현 행위마저 불가능한 '언어의 감옥에 갇힌 수인囚人' 이 되고 마는 재일교포 2세의 정체성을 칼날처럼 벼린 책"이라고 해석했다.

10월 15·16일자 각 신문 지면은 등단 40년째인 중견작가 이청준 씨가 4년 만에 펴낸 새 소설집 《꽃지고 강물 흘러》를 반색하며 맞이했다. 〈국민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의 보도가 그 중 돋보이는 가운데 이씨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첨단 대량 정보시대에도 여러 면에서 가내 수공업적 특질을 벗어날 수 없는 문학이 유효한 것인지 의구심을 금치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책을 낸 소회를 밝혔다. 그는 또 "살아 있는 삶의 정보 자율체라 할 소설은 그 정보의 선악과 유용성을 가려내는 검색 기제로서의 기능 한 가지만으로도 그 존재의 값을 힘있게 지닐 수 있다"고 자신만의 '문학사상' 을 들려주기도 했다.

**지구상 가장 아름다운 진화물, 《벌거벗은 여자》에서 찾다**

"진화에 애당초 평준화 같은 것은 없다. 여자야말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 중에서 가장 진화한 아름다운 결과물이다"(〈경향신문〉 9월 18일자). 데스몬드 모리스의 《벌거벗은 여자》를 두고 일간지들은 이런 투의 감격에 찬 탄성과 함께 저마다 품평에 나섰다.

〈동아일보〉는 동물행동학과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여자의 몸을 바라본 특이한 서술로 일관한 책으로 규정했다. 여자의 몸 가운데 목, 어깨, 허리, 골반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22개 신체 부위의 특징과 진화 과정을 훑었으며, 배꼽 피어싱, 눈화장 등 신체를 꾸미는 의미도 분석한 것으로 소개했다.

같은 날짜 〈조선일보〉는 그 중 색다른 내용에 눈길을 두었다. "책은 여자의 몸에 지방의 비율이 더 많다고 함으로써 유아적 특질을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그렇다고 결코 남성우월론을 펼치는 것은 아니다"고 환기했다. 한편으론 '여성은 육체적으로 어린이 같은 특성을 보존하지만 점점 더 감각적이고 주변 사람을 챙겨주는 기질을 갖추게 됨으로써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적으로 더 성숙할 수밖에 없다'는 지은이의 주장에 동의를 표했다. 출판저널

출판저널 편집부